

투표함 뚜껑 열어봐야 안다... 1000표 내외 승부 속출할 듯

7·30 재보선 유병언 시신 발견·야권 단일화로 9곳 경합

선거 당일 젊은 층 투표율·무더운 날씨 등이 최대 변수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개 재보선 지역구 곳곳에서 접전 양상이 전개되면서 승부가 1000표 내외에서 갈리는 경우도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하는 곳은 각각 3곳밖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9개 지역 재보선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뒷발'인 부산 해운대·기장갑과 울산 남을 등 영남 2곳과 충북 충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4개 지역 가운데 전남 나주·화순과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주 광산을 등 3개 지역구에서 만 우위를 점했다.

격전지인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초반 새정치연합의 공천 실패 등으로 일부 반사 이익을 누렸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뒤늦은 시신 발견과 야권 단일화 등 변수가 겹치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합 양상이라는 것이다.

△안개 속 접전=서울 동작 을은 정의

당 노회찬 후보로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며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합, 새정치연합은 경합 열세지로 분류했다.

수원 '삼각벨트'의 경우 새누리당은 수원(권선)에서 경합우세, 수원병(말발)과 수원정(영통)에서는 경합을 전망했다. 새정치연합은 수원병과 정은 근소한 우세를 점했고, 수원을도 박빙열세까지 따라잡았다고 자체 분석했다.

평택 을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초반 우세했지만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로 승패를 속단하기 힘든 경합이라는 공통된 입장이다.

김포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새누리당은 안정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며 경합우세를, 새정치연합은 김두관 후보가

인물론으로 맹추격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합을 주장했다.

충청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대전 대덕과 충남 서산·태안 두 지역에서 조심스러운 경합우세를, 새정치연합은 두 지역 모두에서 박빙열세를 점했다.

전남 순천·곡성도 주요 경합 지역구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후보의 바람을 토대로 승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안심할 수 없지만 '정치적 뒷발'이라는 근거로 근소한 차의 우세를 지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막판 변수는=야권 단일화와 세월호 분위기 등 민심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은 이미 효과를 발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여야 모두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런 가

운대 선거 당일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변수는 무엇보다 투표율로 꼽히고 있다.

전통적으로 재보선 투표율은 30% 안팎에 머물 정도로 낮은데 젊은층보다는 노년층 참여가 높아 새누리당에 유리했던 만큼, 투표율과 20~30대 참여 비율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여야 모두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투표율이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심판론'이 비등하며 예년보다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투표가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날씨 역시 또 다른 변수다. 최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의 투표장 행렬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7·30재보선 여야 자체 판세 분석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 을 ○	수원 을(권선) ▲
	수원병(말발) ○	수원정(영통) ○
경기	김포 을 ▲	김포 병 ○
	평택 을 ○	평택 병 ○
대전	대덕 을 ▲	대덕 병 ○
광주	광산 을 ×	광산 병 ◎
울산	남을 을 ◎	남을 병 ◎
부산	해운대-기장갑 ◎	해운대-기장갑 병 ×
충북	충주 을 ◎	충주 병 ×
충남	서산-태안 ▲	서산-태안 병 ▼
전남	순천-곡성 ○	순천-곡성 병 ▲
	담양-함평-영광-장성 ×	담양-함평-영광-장성 병 ◎
	나주-화순 ×	나주-화순 병 ◎

◎:우세 ○:경합 ▲:경합우세 ▼:경합열세 ×:열세



안대표는 수원을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오른쪽) 공동대표가 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대에서 유세차를 타고 백혜련(가운데) 수원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표는 수원병 지원 새누리당 김용남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가운데)가 2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서 김무성 대표(왼쪽), 김태호 최고위원과 함께 유세차를 타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차기 총선 전략 공천은 없다”

강제 당론 투표 더이상 불필요

국회·회의 미출석 의원 제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차기 총선 공천에서 “절대 전략 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이뤄진 이준석 당 혁신위원장과 긴급 영상 대담 공개를 통해 “당에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만들어졌는데 다 필요 없다”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는, 중앙당은 선관

위에 보내기 위한 요식 행위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상당형 공천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을 미리 정해 투표하는 당론 투표에 대해 “이제는 당론 투표는 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와 중앙당 회의 출석을 이끌어낸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자주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불참하는 사람한테는 점을 놓도록 하겠다”며 제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세월호 특별법 처리, 결국 8월로

특검 추천권 놓고 여야 줄다리기 ‘팽팽’

여야는 29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다시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압력 TF(태스크포스)’ 양당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상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6일 4차회담에서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

자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여야는 전날 밤 ‘2+2’ 협상에서 특검 추천 문제를 제외한 특검 기간 등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서 특검을 추천하자는 대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사실상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유병언 시신 아니다” 의혹 제기

변사체 키·지문채취 방법 의문

새누리 “조작 불가능” 반박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 진위와 관련, “유병언이 아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7월21일인지 22일 새벽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과수 요원 3~4명이 순천 장례식장을 왔고 그 변사체를 감식했다. 그 자리에 순천경찰서와 전남도 경찰 관계자가 임회를 했다”며 “그 경찰관계자는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경찰 관계자를 인터뷰한 기자가 저희 당에 제보를 해 그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아니라는 근거로 “경찰 관계자가 보는 자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 유병언 시신의 키를 잴는데 150cm로 나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국과수는 지난 25일 (시신 크기) 159cm대로 발표했다. 키가 안 맞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상당히 부패된 시체에서 제일 지문채취 가능성이 크다고 본인족 손가락에서 두 차례 지문채취에 실패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22일 오

른쪽 검지에서 지문채취에 성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병언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해명서를 내고 “당시 순천장례식장에서 분리된 머리와 몸통을 붙여 신장을 측정 한 결과 ‘150~154cm가량 추정되나 목뼈 3개가 없어 무의미하다’는 대화가 있었다”며 “다만 국과수는 지난 25일 부검 결과 대퇴골 길이를 통해 산출하는 기법으로 신장이 159.2cm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 채취와 관련, “최초 과학수사 요원이 육안으로 볼 때 오른쪽 손이 왼쪽 손보다 부패가 심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우선 왼쪽 손의 지문 채취를 시도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냉동보관으로 지문 용선 상태가 개선된 오른쪽 손에서 1점 채취에 성공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당의 당직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과수 관계자가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사망감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일하는 국과수 관계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조작을 한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서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